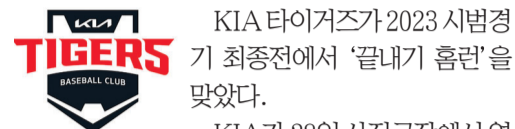


KIA 시범경기 최종전 '끝내기 패'

정해영 홈런 맞아 롯데에 6-7
시범경기 전적 5승 2무 6패



KIA 타이거즈가 2023 시범경기 최종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맞았다. KIA가 28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에서 6-7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6-5로 앞선 9회말 2사 2루에서 마무리 정해영이 고승민에게 우월 투런포를 맞고 패전투수가 됐다.

이날 패배로 KIA의 올 시즌 시범경기 전적은 5승 2무 6패가 됐다. 1경기는 비로 치르지 못했다. 사이드업 임기영이 선발로 나오면서 최종전에서 '5선발' 마지막 시범 무대가 펼쳐졌다.

1회말 3루수 김도영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임기영이 첫 타자를 내보냈고, 도루를 허용하면서 무사 2루가 됐다.

임기영이 안치홍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렉스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면서 실점했다. 이어진 1사 1루에서는 김도영이 한동희의 땅볼 타구를 잘 잡아 2루로 송구하면서 더블아웃을 만들었다.

임기영이 2회에는 노진혁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는 등 빠르게 투 아웃을 만들었다. 하지만 유강남을 시작으로 김민석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고, 황성빈에게 2타점 3루타를 내줬다. 임기영은 안권수-안치홍까지 5타자 연속 안타로 3실점을 하며 2회를 보냈다.

임기영은 3회에도 첫 타자 한동희에게 좌측 2루타를 맞았다. 하지만 고승민의 2루 땅볼 때 김민석의 좋은 수비로 스타트를 끊었던 한동희를 잡아내면서 원아웃. 이어 노진혁과 유강남을 연달아 3구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남은 투아웃을 채웠다.

4회 김승현으로 투수가 교체되면서 임기영의 이날 성적은 3이닝 7피안타 5탈삼진 4실점(3자책점)이 됐다.

KIA는 2회와 5회 롯데 마운드를 공략했다. 0-1로 뒤진 2회초 소크라테스가 선발 김동우를 상대로 좌전안타를 때렸고, 최형우의 연속 안타가 나왔다. 변우혁의 땅볼 타구를 잡던 2루수 안치홍의 송구실책으로 1-1. 류지혁의 병살타가 나왔지만 3루에 있던 최형우가 홈에 들어왔다.

한승택의 몸에 맞는 볼에 이어 김효령과 박찬호의 연속 안타로 KIA가 3-1로 승부를 뒤집었다.

3-4로 뒤진 5회 KIA가 다시 역전에 성공했다. 박찬호가 선두타자로 나와 좌중간 안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다. 김도영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김선빈의 우전 안타로 1사 1·2루. 김석환과 최형우가 연달아 볼넷을 고르면서 밀어내기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변우혁의 좌전 적시타로 5-4, 류지혁의 병살타가 나왔지만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6-4가 됐다.

김기훈이 허리 싸움을 이끌었다. 박준표에 이어 6·7회 마운드에 오른 김기훈은 18개의 공으로 2이닝 퍼펙트를 기록,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기훈은 피안타-볼넷 없이 2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8회에는 또 다른 좌완 기대주 최지민이 등판했다. 최지민이 고승민과 이학주를 각각 유격수 플라이와 우익수 플라이로 잡았지만, 지시완에게 좌측 2루타를 맞았다. 김민석의 땅볼 타구를 처리하던 유격수 김규성의 실책까지 나오면서 위기는 계속됐다. 최지민이 2사 1·3루에서 보크를 범하면서 6-5가 됐다.

9회말 1점 차에서 마무리 정해영이 등판했다. 정해영은 첫 타자 박승욱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았지만, 전주우에게 중전안타를 맞았다. 이호연을 좌익수 파울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투아웃. 하지만 고승민에게 던진 6구째 직구를 공략당해 끝내기 투런포를 남겼다. KIA는 사직 2연전에서 7개의 실책과 보크, 끝내기 홈런 등을 남기면서 아쉬움 속에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와 똑같네' 메시 실물 크기 동상 제작 리오넬 메시가 28일 파라과이에 있는 남미축구연맹 본부에서 열린 '스타들의 밤' 시상식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동상을 유심히 지켜 보고 있다. 남미축구연맹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메시를 초청해 상을 주고 메시의 동상도 공개했다. 남미축구연맹이 실물과 같은 동상을 제작한 것은 펠레와 미라도나에 이어 메시가 세 번째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올스타전 7월 15일 부산 사직구장서 열린다

16년 만에 사직구장에서 올스타전이 열린다. KBO가 2차 이사회를 통해 2023시즌 올스타전 개최 장소를 부산 사직구장으로 확정했다. 올스타전은 오는 7월 15일(토)에 열리는 사직구장 개최는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이다.

감독, 코치, 선수의 올스타전 출전 수당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사회는 수비 가치를 인정하고 수비 기량 향상을 위해 KBO 수비상(가칭)도 신설했다.

후보, 수상자 선정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추후 실행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부상자 명단 등재 연장과 간소화했다.

동일한 부상으로 인한 부상자 명단 등재를 연장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진단서 없이 신청서 제출

만으로 가능하게 개정했다.

엔트리 말소일이 부상자 명단 등재 시작일이었던 기존 규정도 개정해 해당 선수의 마지막 경기 출장 다음날로부터 최대 3일까지 엔트리 말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수 부상 경과를 지켜본 이후 부상자 명단에 등재할 수 있게 됐다. 또 명단에 등재된 경우 마지막 출장 다음 날로 명단 등록 시작 일을 소급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2023 WBC 등 국제대회에서의 연이은 부진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리그 경기력과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선우가 27일 오후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스윙 챔피언십(2023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사흘째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역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선우, 국대 선발전 남자 자유형 100m 가볍게 1위

여자 자유형 100m 허연경
54초74 한국 신기록 1위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가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자유형 100m에서 가볍게 1위를 차지해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물살을 가르게 됐다.

황선우는 27일 오후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스윙 챔피언십(2023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사흘째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2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2021년에 개최된 도쿄올림픽 준결승에서 자신

이 세운 한국 기록이자 아시아 기록 47초56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국내에서는 역시 마땅한 적수가 없었다.

한편, 이날 여자 자유형 100m에서는 허연경(방산고)이 54초74의 한국 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정소는(울산광역시청)이 지난해 7월 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에서 수립한 종전 기록(54초82)을 0.08초 줄이며 생애 첫 한국 기록을 세웠다.

새 한국 기록임에도 국제연맹 A기록(54초25)에는 미달했으나 대한수영연맹 자체 기준기록(55초06)을 넘은 허연경은 추후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파바르 원더골' 프랑스, 아일랜드 꺾고 유로 예선 2연승

2022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팀 프랑스가 아일랜드에 진담승을 거두며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예선 2연승을 달성했다.

프랑스는 28일(한국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아비바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 2024 예선 B조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아일랜드를 1-0으로 따돌렸다.

25일 1차전에서 네덜란드를 4-0으로 완파했던 프랑스는 2연승으로 조 선두(승점 6)에 올랐다.

프랑스의 수비수 뱅자맹 파바르(바이에른 뮌헨)가 선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파바르는 후반 5분 상대 패스를 끊어낸 뒤 바로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트를 때려 골문을 열었다.

이 경기로 유로 예선을 시작한 아일랜드는 이 한 골을 만회하지 못한 채 첫 패배를 떠안으며 하위권에 처했다.

로테르담에서 열린 다른 B조 경기에서는 홈팀 네덜란드가 지브롤터를 3-0으로 제압, 프랑스전 패배 뒤 이번 예선 첫 승으로 3위(승점 3)에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맴피스 데

파이(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반 23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고, 나만 아케(맨체스터 시티)가 후반 5분과 37분 멀티 골로 맹활약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홈페이지 기록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이 경기에서 무려 49개의 슈팅을 퍼부었다.

지브롤터는 그리스와의 1차전(0-3)에 이어 2연패를 당해 최하위 5위에 그쳤다.

G조에서는 세르비아가 두산 블라호비치(유벤투스)의 멀티 골을 앞세워 몬테네그로를 2-0으로 꺾고 2연승 선두(승점 6)를 달렸다.

첫 경기에 나선 헝가리가 K리그1 울산 현대 소속 공격수 마틴 아담이 득점포를 가동한 가운데 불가리아를 3-0으로 눌러 세르비아에 이어 2위(승점 3)에 올랐다. /연합뉴스

유해란 첫 승 도전·고진영 2승 사냥 나선다

LPGA투어 LA오픈 31일 개막

부활한 고진영이 한인 교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우승 사냥에 나선다.

고진영은 오는 31일(한국시간)부터 나올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버디스 이스테이츠의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리는 LPGA투어 디오 임플란트 LA오픈(총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고진영은 지난해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고진영은 올해 들어 3차례 출전한 LPGA투어 대회에서 공동 6위-우승-공동 5위를 차지했다. 1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뿐 아니라 대회 때마다 상위권 성적을 냈다는 사실은 부상과 스윙 난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다.

27일 끝난 드라이브 챔피언십에서는 목이 아파서 컨디션이 온전치가 않았지만, 우승 경쟁을 벌일 만큼 경기력과 정신력이 제 궤도에 올랐다.

대회가 열리는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은 미국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다.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코요인 토런스 손은 한인 밀집 거주 도시다. 현지



유해란



고진영

한국 교민 응원이 아주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데뷔전 드라이브 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에 올라 LPGA투어 연착륙을 예고한 유해란은 신인 첫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고진영과 유해란 말고도 전인자, 김효주, 최혜

진, 김세영, 이정은, 지은희, 김아림, 안나린, 최운정, 양희영, 유소연, 신지은, 박석현 등 한국 선수 22명이 출전한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넬리 코다(미국), 아타야 티피판(태국) 등도 우승을 노리고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